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진희*

전요섭**

논문초록

이 연구는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일부 교회와 대학교에서 기독교청년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은 첫째,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 하위변인 중 인정욕구/자기거대환상과 목표 불안정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영적 안녕감 중 실존적 안녕감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독교청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영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독교청년의 경건훈련에 따른 내현적 자기에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독교청년의 경건훈련과 예배참석 빈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왜곡된 자기애를 가진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건강한 자기부인을 통해서 건전한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청년,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스마트폰 중독, 영적 안녕감

* 성결대학교심리상담연구소 전임연구원

** 성결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2013년 11월 19일 접수, 12월 6일 최종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인들은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시대를 뛰어넘어 이른바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성과로 가치를 평가받는 성취제일주의가 만연해 있다. Mark R. McMinn은 “교만하고 이기주의적 사고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과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방해 한다”고 하였다(전요섭·박성은, 2011: 188).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기에 성향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시키는 것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에 성향은 개인의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 유지와 사회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줄 수 있다(권석만·한수정, 2000: 17). 자기에게 몰두하는 자기에 현상은 청소년을 지나 청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APA, 2000: 717). 청년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시기이다. Erikson은 청년기에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된다고 했다(송명자, 1995: 355). 친밀감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서적 능력을 의미하며, 청년기에 친밀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식적이며, 사회적 행동과 적응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고립감에 빠져들게 된다. 이처럼 기독교청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몰두하게 된다.

성경에 따르면 말세의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고, 쾌락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에 두는 것은 우상이며 죄라고 말하고 있다(딤후 3:15).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손상시키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아에 대한 시각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남을 경험하여 자아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한 건강한 자기에를 가진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 표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지고 있다(박현철·전요섭, 2009a: 91; 2009b:

81). 이러한 왜곡된 자기애는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착취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공동체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결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정신장애 진단체계(DSM-IV-TR)에 따르면 자기에 성격장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과장된 자기상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과도하게 주목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월감, 거대한 환상과 자기 과시, 자아중심적 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조작성, 착취성, 공감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다른 사람의 정서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려 하고, 시기 등이 핵심신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적응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기술하였다(APA, 2000: 716-17).

자기애 성격특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고, 항상 자신에게 주목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자신에 대한 수치감과 불안, 두려움,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된다(Kitron, 1994: 203). 이처럼 자기애가 단일 성격특성이 아닌 자기애와 표면적으로는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유사한 역동과 인지, 정서적 특성을 지닌 또 다른 자기애적 병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적 관찰에 따라 자기애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권석만·한수정, 2002: 51). 두 가지 자기애 성격은 모두 취약한 자아개념을 공통 핵심 특성으로 가지고 있으나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상은 현저히 다르다.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의 특징은 거대 자기표상과 자기 과시적 경향으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자기애 특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며, DSM-IV에 제시된 자기애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된다. 이들은 자아 지각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요구하고 열등감, 우울감, 소진감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애 성향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애 성격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을 갖는 사람들은 웅대한 환상이 나타나며, 매우 민감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또한 자기상이 상처 입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평가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외현적 자기에와 주요 핵심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불안감이나 수치심, 공허감, 불완전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쉽게 느낀다(Akhtar & Thomson, 1982: 20-21; 권석만·한수정, 2000: 53).

내현적 자기에겐 겉으로 들어나는 자기에 성격은 보이지 않으나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에 성격 역동과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외현적 자기에보다 내면 안에 불안과 두려움,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물질이나 행동들로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진다(Kohut, 1974: 3-4; 권석만·한수정 2000: 38-39). Kohut(1974: 3-4)은 ‘중독적 행동’을 자기에 행동장애의 주요한 증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자기 병리의 관점을 통해서 중독을 언급하였다. 송혜진(2011: 31-49)은 스마트폰 중독자들 중에는 인간관계에서 예민한 사람들이 직접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아존중감이 떨어져 있거나 불안해서 무언가를 빈번하게 재확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출된다고 분석했다(2011: 31-49). Young(2000: 101-106)은 인터넷 중독 성향과 영적 상태에는 어떤 탈출 욕구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고, 인터넷 중독자들은 대부분 우울하고 외로운 상태이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고,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상태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장혜진(2002: 47)은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통제 상실이나 충동성이 높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휴대폰 사용으로 해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은 기술의 발달, 이용의 편리성 등 외적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12)가 발표한 ‘2012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답했고, 35.8%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답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률이 8.4%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중독률 7.7%보다 더 높았다.

스마트폰의 보급의 보편화로 인해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면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물론 지하철이나 버스 안, 길을 걸으면서도 쉴 틈 없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배시간에도 예외가

아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러야 하는 예배가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예배시간 또는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및 공동체 지체들 간의 교제와 신앙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자기에 성향 중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역동성을 가진 내현적 자기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들기 쉬운 성격적 요인으로 가정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경건훈련과 예배참석 빈도에 따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첫째,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기독교청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기독교청년의 경건훈련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기독교청년의 경건훈련과 예배참석 빈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선행연구

최원희 외(2011: 106-107)는 인터넷 중독 성향의 청소년에게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태도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인터넷 중독 성향의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에서는 자이존중감이 낮은 상태로 지내면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높아지게 되고,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기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실험집단인 중독 성향군 27명, 통제집단이 30명으로 대상 군의 인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계정·정남운(2007: 65-66)은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이 인터넷 보상경험과 인터넷 과다 사용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현실

에서 충족되지 못한 자기애적 욕구와 억압된 공격성 등을 인터넷에 몰입하여 해소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연구대상이 청소년, 특히 남자고등학생에 편중되어있음을 볼 때 인터넷 게임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민감하고 관심을 받으려하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뿐 아니라 휴대하기 쉬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SNS 등의 중독과도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성만(2011: 1620) 등은 청소년의 실존적 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실존적 안녕감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고, 실존적 영적 안녕감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모형을 밝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실존적 영적 안녕감을 증진하고 우울을 예방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과 종교가 없는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영적 안녕감에서 종교적 안녕감을 제외한 실존적 안녕감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민주(2009: 40)는 청소년의 자기애와 영적 안녕감의 관계와 성별에 따른 종교적 안녕감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기애와 영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애와 영적 안녕감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방어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방어적 이상화와 영적 안녕감의 관계가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청소년 문제가 자기애와 관련이 많다는 점과 청소년기의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청소년 문제를 기독교상담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는 바람직한 연구이지만, 청소년의 종교유무와 상관없이 연구를 진행하여 종교를 가진 청소년이 영적 안녕감이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만한 결과이므로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애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여 영적 안녕감과 관계의 연구를 했을 뿐, 자기애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제순하(2011: 5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회피를 매개로 연구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경험회피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과 경험회피 수준이 높았다. 이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관련성을

제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중독 문제 중 인터넷 중독에만 초점을 두었다. 최근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두 배의 해당할 정도로 높은 중독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는 시기적절하며 의미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중독 성향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발견할 수 있으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고 특히 기독교청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가 스마트폰 중독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경건훈련과 예배참석에 따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알아보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기독교상담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일부 대학교와 교회에 출석하는 20-30대 기독교청년 대상으로 무선표집하였다. 연구자들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검사지 가운데 결측치가 있고 연구에 부적절한 검사지를 제외한 나머지 334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측치가 많은 이유는 문항수가 다소 많아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는 통계프로그램 SPSS 19.0판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 검사도구

1)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 Scale: CNS): 이 척도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에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45-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개발자들이 보고한 신뢰도는 Cronbach α = .90이었고, 이승현(2011)의 연구에서는 .90으로 나왔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α =.93으로 나왔다.

〈표1〉 내현적 자기에 척도 하위변인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역산문항
목표 불안정	9	5, 15, 20, 23, 29, 30, 37, 42, 44	20, 37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9	2, 7, 13, 17, 24, 33, 38, 43	
착취/자아중심성	9	4, 9, 11, 12, 16, 22, 27, 35, 45	
과민/취약성	10	3, 8, 10, 14, 19, 25, 26, 31, 36, 40	
소심/자신감부족	8	1, 18, 21, 28, 32, 34, 39, 41	34
전체		45	

2) 스마트폰 중독: 이 척도는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 개발한 성인 자가진단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성, 금단, 내성 등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이다. 개발
당시 이 척도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 α =.81였고, 강주연(2012)의 연구에서 .88이었
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α =.91으로 나왔다.

〈표2〉 스마트폰 중독 척도 하위변인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역산문항
일상생활장애	5	1, 5, 9, 12, 15	15
가상세계지향성	2	2, 6	
금단	4	4, 8, 11, 14	4
내성	4	3, 7, 10, 13	10
전체		15	

3) 영적 안녕감(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이 척도는 Palutzian과 Ellison
(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감 척도로 박지아(2002)가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종교적 영적 안녕감과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 및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적 안녕감이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박미하(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93, 이 연구에서 영적 안녕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94이며 영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문항 구분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3〉 영적 안녕감 하위변인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역산문항
종교적 영적 안녕감	10	1, 3, 5, 7, 9, 11, 13, 15, 17, 19	1, 5, 9, 13
실존적 영적 안녕감	10	2, 4, 6, 8, 10, 12, 14, 16, 18, 20	2, 6, 12, 16
전체		20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

〈표4〉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72	51.5
	여	162	48.5
연 령 대	20대	298	89.2
	30대	36	10.8
신앙년수	모태신앙	170	50.90
	5년미만	46	13.77
	5~10년 미만	39	11.68

	구분	빈도(명)	백분율(%)
	10년 이상	79	23.65
학력	중졸이하	2	0.6
	고졸	33	9.9
	대재대졸	246	73.7
	대학원	53	15.9
예배참석	주1회	114	34.1
	주2~3회	137	41.1
	주4회 이상	81	24.3
	없음	2	0.6
경건훈련	거의 매일	79	23.7
	자주	103	30.8
	가끔	118	35.3
	거의 안함	34	10.2

2)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목적 빈도

〈표5〉 스마트폰 사용목적 빈도

		스마트폰 용도										합계		
		인터넷	SNS	메신저	이메일	금융	게임	쇼핑	음악 감상	영화	일정관리		기타	
성 별	남 자	총계	136	115	144	53	42	73	25	107	30	76	20	172
		성별 중 %	79.1%	66.9%	83.7%	30.8%	24.4%	42.4%	14.5%	62.2%	17.4%	44.2%	11.6%	
	여 자	총계	132	119	150	47	38	51	44	117	35	75	9	162
		성별 중 %	81.5%	73.5%	92.6%	29.0%	23.5%	31.5%	27.2%	72.2%	21.6%	46.3%	5.6%	
합계	총계	268	234	294	100	80	124	69	224	65	151	29	334	

남자는 스마트폰 이용목적이 메신저, 인터넷, SNS, 음악감상, 일정관리, 게임, 이메일, 금융, 영화, 쇼핑, 기타 순으로 가장 많았다. 여자는 메신저, 인터넷, SNS, 음악감상, 일정관리, 게임, 이메일, 쇼핑, 금융, 영화, 기타 순이었다.

3)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기독교청년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남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평균은 29.71, 표준편차는 7.54이며, 여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평균은 31.45, 표준편차는 7.62이다. 기독교청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값은 -2.10, 유의확률은 .03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6>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검정결과

성별	남	여
M	29.71	31.45
SD	7.54	7.62
N	172	162
t	-2.10	
유의확률	.037*	

*p<.05

4)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7>와 같다.

측정한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착취/자아중심성, 과민성/취약성, 소심/자심감부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그 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목표 불안정이 포함된 모형의 F값은 56.97, 유의확률 .000, 유의수준 .05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총변화량의 26%(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2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인정욕구(t=6.31, p<.000), 목표 불안정(t=6.44, p<.000)이며, 인정욕구, 목표 불안정 순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7〉 내현적 자기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스마트폰 중독 점수					
	비표준화 계수		β	t	R ² (adj-R ²)	F
	B	SE				
목표 불안정	.42	.09	.31	6.31***	.256(.252)	56.97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55	.07	.32	6.44***		
상수	10.67	1.97				

*** p<.001

5) 기독청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영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6.196, p<.000), 내현적 자기애 하위변인 중 목표 불안정성(t=-11.01, p<.000), 착취/자아중심성(-5.25, p<.000), 과민/취약성(t=-3.16, p<.000)에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순서는 과민/취약성, 착취/자아중심성, 목표 불안정성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은 영적 안녕감의 전체변량 중 54%(R²=.5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 내현적 자기애가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β	t	R ²	F
	B	SE				
목표 불안정	-.921	.084	-.524	-11.01***	.54(.53)	96.196***
착취/자아중심성	-.558	.084	-.247	-5.25***		
과민/취약성	-.348	.110	-.178	-3.16**		
상수	89.325	2.072		43.111		

*** p<.001

6) 기독교청년의 영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9>과 같다. 분석결과 영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실존적 안녕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3.61, p<.001). 모형은 스마트폰 중독점수 전체변량의 13%(R²= .1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영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β	t	R2	F
	B	SE				
종교적 안녕감	-.219	.131	-.146	-1.673 (.095)	.125	23.619***
실존적 안녕감	-.321	.125	-.224	-2.562* (.011)		

*p<.05 *** p<.001

7) 경건훈련에 따른 내현적 자기에의 차이

경건훈련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경건훈련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 점수는 .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사후분석 결과 경건훈련을 거의 매일 하는 사람이 경건훈련을 자주하거나 가끔 하는 사람, 거의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내현적 자기에가 낮았다.

<표10> 경건훈련에 따른 내현적 자기에

	N	M	SD		SS	df	MS	F	Scheffe	
내현적 자기에	거의 매일	79	88.24	16.78	경건 훈련	11115.942	3	3705.341	12.99***	a<b,c,d
	자주	103	98.67	17.19	오차	94168.932	330	285.360		
	가끔	118	100.65	16.29						
총합	거의 안함	34	106.97	18.27	합계	105284.874	333			
	합계	334	97.75	17.78						

***p<.001

8) 경건훈련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경건훈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1>과 같다. 경건훈련 4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값은 6.78, 유의확률은 .000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경건훈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사후분석 결과 경건훈련을 거의매일 하는 사람이 경건훈련을 자주하거나 가끔 하는 사람, 거의 하지 않는 사람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낮게 나왔다.

<표11> 경건훈련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N	M	SD		SS	df	MS	F	<i>scheffe</i>
거의 매일	79	27.57	7.76	경건 훈련	1121.420	3	373.807		
스마트 폰 중독									
자주	103	30.97	7.58						
가끔	118	31.28	6.91	오차	18193.110	330	55.131	6.78***	a<b,c,d
거의 안함	34	33.71	7.88	합계	19314.530	333			
합계	334	30.55	7.62						

***p<.001

9) 예배참석 빈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예배참석 빈도를 주 0~1회, 2~3회 4~5회 이상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예배참석률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12>와 같다.

주 0~1회 예배참석 청년집단의 평균은 32.14, 표준편차는 7.22이고, 2-3회 예배참석 청년의 평균은 29.94, 표준편차는 7.54이며, 4-5회 이상 예배참석 청년의 평균은 29.32, 표준편차는 8.00이다.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값이 4.09, 유의확률은 .018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예배참석 빈도에 따라 기독교청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예배를 주 1회 이하 참석하는 집단보다 주 4~5회 이상 참석하는 집단이 스마트폰 중독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2〉 예배참석 빈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0-1회	2-3회	4~5회이상	합계
평균	32.14	29.94	29.32	30.55
표준편차	7.22	7.54	8.00	7.62
사례수	116	137	81	334

	SS	df	MS	F	<i>scheffe</i>
예배참석 빈도	465.550	2	232.78	4.09*	
오차	18848.980	331	56.95		a>c
합계	19314.530	333			

*p<.05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기독교상담방안 모색

이 연구는 기독교청년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의 다섯 개 하위변인 중 목표 불안정과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의 중독이 착취적이거나 소심한 자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목표 불안정과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청년시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자아 정체성에 정립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소명에 대한 생각과 또한 같은 곳을 보며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등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의 하위변인인 착취/자아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설문응답자의 51%가 모태신앙이었고, 나머지 대부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아동기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이타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 받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높은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목표가 불안정하고 자아 정체성이 확실치 않을 때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의 핵심신념에는 그릇된 신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항상 옳아야만 한다”, “나는 항상 최고이어야만 한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대로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일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등이 있다. 이러한 자기애 성향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정녕 죽으리라”(창 3:3)고 명하셨다. 하지만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며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창 3:4)고 했다. 이처럼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고 서로 죄를 귀인함으로써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그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도록 상담자가 도와야 한다(Backus, 2008: 90). 또한 내담자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에 이르도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를 이미 물리치셨다는 것과 승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마 28:18; 엡 6:16).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하며 성경적인 사랑에 의미를 깨달아 내담자의 자아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으로 향하도록 도와야 한다(Bobgan, 1985: 207)

둘째,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영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 영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에 하위변인 중 목표 불안정성, 착취/자아중심성, 과민/취약성에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순서는 과민/취약성, 착취/자아중심성, 목표 불안정성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주변사람의 반응에 민감하여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착취하려는 자아중심적 사고와 행동이 영적 안녕감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청년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영적 안녕감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자기에의 원인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말하고 있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기독교청년은 가정에서는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한 사회인으로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에 예민하고 자아중심적이지만 소심하고 자기 확신이 매우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함까지도 해결하심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므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성경에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기록되었다(롬 8:5).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병리적인 자기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기부인(denial)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도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마 16:24; 눅 9:23).

셋째, 기독교청년의 영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영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중 실존적 안녕감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청년의 실존적 안녕감 즉, 현실에 대한 만족과 평안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물질 중독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안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경고체계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사탄이 왜곡시키는 현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해로운 불안을 조성하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회피하도록 만들거나 유지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게 하는 것이다(Backus, 2013: 149). 사탄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자아는 불안함을 갖는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게 한다(Backus, 2008: 113).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직 세상 속에 있는 한 불안한 삶에서 벗어 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사탄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 공격하지는 못한다(슥 3:1-8).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사탄이 헤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에 나타나는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돕고, 불안과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선포하므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답전 4:5; 빌 4:7).

넷째, 기독교청년의 경건훈련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의 차이 검증한 결과, 경건훈련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건훈련을 거의 매일하는 사람이 경건훈련을 자주하거나 가끔 하는 사람,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내현적 자기애가 낮게 나왔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지라도 사람은 죄성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였다(롬 7:21-25). 즉, 인간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새 자아와 육체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옛 자아가 존재한다. 옛 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을 갖도록 하고, 그릇된 신념을 촉진시켜 하나님과 이격되도록 하고 독립적이 되도록 촉구한다(Backus, 2008: 111).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의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성경적 사고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잘못된 사고를 찾아서 고백하고 진리로 채우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해야만 가능한 일이

다. Bobgan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실제적으로 지적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했다(Bobgan & Bobgan, 2008: 252-5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진리이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또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씀의 초자연적인 사역, 개인의 깊은 사고와 동기의 분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상담자는 어느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째, 기독교청년의 경건훈련과 예배참석 빈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경건훈련과 예배참석 빈도에 따라 기독교청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예배참석을 주 1회 이하 참석하는 집단보다 주 4-5회 이상 예배참석 집단이 스마트폰 중독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독교청년 중 주 4-5회 이상 예배참석하는 청년이 주 1회 이하 참석하는 청년보다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건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동시에 말씀에 기름 붓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Backus(2013: 312-16)에 따르면 기도는 근심과 염려로 미루는 회피행동 속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 행동이라고 했으며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기도라고 했다(Backus, 2013: 312-16). 인지왜곡으로 인한 불안이나 불행한 느낌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을 듣는 대신에 성령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부정적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다(Wright, 1973: 141-45).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간구이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이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내담자를 치료하고 변화 이후에 지속된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게 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자기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내담자 자신의 기도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문제만 나열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응답의 방향을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Backus & Chapien, 1980: 61-62). 따라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부정적 자기대화에 대처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불안으로 고통 받는 내담자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내담자의 자기애를 하나님과 이웃으로 향하도록 권면해 주어야 한다(Bobgan, 1985: 207). 내현적인

자기에의 기저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 속에 확신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 정서들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적 자아정체성과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Backus & Chapian, 1980: 67).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다(요 3:14).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 및 경건훈련으로 옛 사람, 즉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로 죄성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롬 4:5-8; 딤후 4:5).

2. 제언

이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일부 대학과 교회의 기독교청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청년 전체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검사지의 문항이 많아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수업과 예배시간 전후에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염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자기에에 대한 연구는 일반상담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대상 또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심리정서적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자기에 성향의 문제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연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역동적인 기제를 가진 내현적 자기에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 연구는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 스마트폰 중독, 영적 안녕감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행동문제를 파악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용적 가치를 갖는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갖지만 몇 가지 제안점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지역 일부 대학교와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청년을 대상으로 검사지에 의해서만 표집된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기독교청년 또는 일반청년과의 비교연구가 시행된다면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의미있는 연구

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기독교청년의 자기에 성향 중 역동기제를 가진 내현적 자기에만을 가장 큰 문제성향으로 보고 연구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뿐만 아니라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같이 비교하여 중독행동에 미치는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에 하위유형 경험 연구는 많지 않으며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의 문화적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내향성 자기에와 집단주의와 같은 성향 역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석만·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유영권 (2008). 『기독교상담학: 영역 및 증상별 접근』. 서울: 학지사.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00). DSM-IV-TR. Washington, D.C.: APA.
- Backus, William D.(1980) & Chapien, Marie. *Telling Yourself the Truth*. Minneapolis: Bethany House.
- _____ (1987). *Finding the Freedom of Self-control*. Minneapolis: Bethany House.
- _____ (1985). *Telling Each Other the Truth*. Minneapolis: Bethany House.
- _____ (1985). *Telling the Truth to Troubled People*. Minneapolis: Bethany House.
- _____ (1994). *Learning to Tell Myself the Truth*. Minneapolis: Bethany House.
- Kitron, David G. (1994). Depression and grandiosity: Clinical and theoretical issues in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disturbances.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24(3), 203-211.
- Kohut, Heinz (199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_____ (1974). *The Analysis of the Self: A Systemic Approach to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3-4.
- Norman Wright, H. (1973). *Self talk Imagery and Prayer in Counseling*. Wheaton IL.: Tyndale House.
- Backus, William D. (1991). *The Good News about Worry*. 전요섭 역(2013). 『희망소식』. 서울: CLC.
- _____ (1990). *The Hidden Rift with God*, 전요섭·노철우 공역 (2013).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 하시는가』. 서울: CLC.
- Bobgan, Martin & Bobgan, Deidre(1985). *How to Counsel from Scripture*. 전요섭 역(2008). 『영혼치료상담』. 서울: CLC.
- Brown, Back P. *The Danger of Self-Love*. 김광의 역 (2000). 『크리스찬의 자기사랑』. 서울: 아가페.
- McMinn, Mark R.(2008).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전요섭, 박성은 공역 (2011). 『죄와 은혜의 기독교상담학』. 서울: CLC.
- Young, Kimberly S. *Caught in the Net*. 김현수 역(2000). 『인터넷 중독증』. 서울: 나눔의집.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김지선 (2008). “기독교청년의 자기애에 관한 성경적 상담 연구.” 『성경과 상담』 8. 19-36.

- 박현철·전요섭 (2009).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하나님 표상 형성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 『신앙과 학문』 14(2). 81-90.
- 신성만 외 (2011). “청소년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과 인터넷중독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613-28.
- 서경현·조성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50.
- 송혜진 (2011).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SNS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 31-49.
- 이계정, 정남운 (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상담 및 심리치료』 19(1). 55-69.
- 최원희 외 (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서의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2). 103-11.
- 최현석 외 (2012).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k대 학생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학회지』 23(5). 1005-15.
- 김민주 (2009). “청소년의 자기애와 영적 안녕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제순하 (2011).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장혜진 (2002). “휴대폰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2011년 인터넷 실태조사.”

ABSTRACT

Relationship among Covert Narcissism, Smart 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Wellbeing in Christian Adolescences

Jin-Hee Park (Sungkyul University),
Joseph Jeon (Sungkyu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among covert narcissism, smart 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wellbeing in Christian adolescences. The research object is 334 people of Christian adolescences in churches and universities around Seoul city and GyeonggiDo.

The conclusion is as followings: firstly,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mart phone addiction in Christian adolescences.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sire need/self-ostentation fantasy and lack of stability of lower factors of covert narcissism. Secondly,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covert narcissism, spiritual wellbeing and existential wellbeing. Thirdly, there is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wellbeing. Fourthly,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ious discipline and covert narcissism. Fifthly,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ious discipline, frequency of worship service attending and smart phone addiction.

Accordingly, the researchers suggest that healthy faith and pious discipline have an effect on modification for distorted narcissism. Also, to prevent covert narcissism in Christian adolescences is to have healthy human relationship/ faith through self-denial of exhibition/desire need.

Key words: Christian adolescence,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Smart Phone Addiction, Spiritual Wellbeing